

안녕하세요. 말라위 양달순, 최성숙 선교사입니다.

더운 여름을 보내고 계실 송원교회 성도님들께 지금 이곳의 좋은 날씨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곳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한국의 가을 날씨처럼 소풍가고 싶을 만큼의 겨울 건기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너무나 반가우신 분의 이메일을 받아보고 그동안 잊었던 추억들을 기억하며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송원교회 희락6,7,8구역이 저희 말라위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고 장정일 장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모처럼 쌓였던 대화를 하게 되니 너무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시는 송원교회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곳 선교지에서의 사역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제약이 있지만 저희 부부는 6월 말에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코로나 이전에 계획했던 사역들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무주 교회에서의 유치원 사역

침발라메 교회 중 하나인 무주교회(Muzu Prayer House) 예배당을 이용하고, 교회 성도의 자녀들 중 4-5세 연령의 아이들 40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9월에서 11월까지가 첫 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거의 안되어 있으므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 은제와 지역 부지에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준비된 부지이며, 이곳에 현지 아이들을 위한 중고등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번에 조금씩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부족한 여건들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컴퓨터와 영상사역, 문서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저희 자녀들은 시온, 산성, 현입니다.

시온이는 금년 9월부터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공부할 예정이고, 둘째 산성이는 9월에 대학교 마지막 학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내인 현이는 같은 시기에 11학년(고 2)을 시작합니다. 막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살게 하셔서오니, 말라위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늘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송원의 모든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양달순 선교사 (+265 999 265 365)

최성숙 선교사 (+265 999 828 255)

이메일: malawiyang@gmail.com